metro
메트로 2014년 1월 10일 금요일 www.metrobusan.co.kr

Sports p/22

'한국판 쿨러닝' 썰매의 기적

#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친 카드사

**동일 '전과' 있음에도 보안대책조차 안세우고 수수방관**
**문제 터질때마다 "철저 조사" 금융당국 무사안일도 한몫**

**Issue&View** 1억건 개인정보 유출 재고된 인재

/이정현기자

금융회사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카드사들은 이러한 고객의 믿음을 저버렸다. 지난 8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세 곳의 카드사로부터 1억건 이상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직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위·변조 방지 작업 용역을 담당했던 이 직원은 고객들의 신상 명세가 담긴 자료를 몰래 빼내 대출 광고업자와 모집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삼성카드 등이 고객 자료 유출로 물의를 일으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카드업계와 금융 당국의 사후 처리나 대비책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사장들이 언론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했지만 이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카드사 감독당국 뒤작業**

금융 당국 또한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뿌리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공무원적인 답변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 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 보호,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관리 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미 지난번 카드업계 정보 유출 사건 후 나왔던 대응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결국 카드업계나 감독 당국 모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는 잃어버리고 있는데 외양간마저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는 이루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고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금융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 기관들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유형의 자산이다.

범인들은 빼돌린 정보로 고작 2000만원 정도의 돈을 손에 쥐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무사안일한 대응과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독 지도 부재가 이런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라며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경각심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더 춥다**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한강변에 얼린 물줄기에 고드름이 맺혀 있다. 10일에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체감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진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연합뉴스

흑점 폭발로 3단계 태양입자 유입 경보

## 항공기 북극항로 우회 미국 2시간 더 걸린다

9일 오전 8시30분께 3단계 태양입자 유입 경보 상황이 발생,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통신 장애 등에 대비해 북극 항로로의 운항을 지제하며 불편을 겪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경보 상황은 8일 오전 3시23분 흑점 1944에서 발생한 3단계 태양흑점 폭발이 원인이다. 흑점 폭발로 태양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양성자 입자가 지구권에 도달해 발생됐다.

3단계 태양입자 유입 경보 상황은 지난해 6월 29일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현재 태양입자 유입 상황은 3단계와 2단계를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11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3단계 태양입자 유입 상황 및 지구자기장 교란 예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기 통신 장애 등에 대비해 당분간 북극 항로로의 운항을 자제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미국 동부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항공기 비행 시간이 최대 2시간까지 증가해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인공위성에는 태양전지판 손상, 위성 자세 변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성 운용기관에서는 위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파연구원 측은 강조했다.

/이예림기자 ly0403@

## 김중수의 8개월 '마이웨이'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한국은행은 새해 첫달 1월에도 어김없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특히 이날은 지난 6일 골드만삭스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뒤라 오전 7시 전부터 취재기자들과 카메라기자들로 한은 기자실은 북새통을 이뤘다. 앞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미국과 일본은 제로 금리로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동결'이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특히 담조 예상을 깨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특정 보고서나 특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금리 결정은 한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독자적인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반론도 듣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 총재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사뭇 궁금해진다.

# 1조 분식회계·횡령·탈세

### 조석래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탈세 1000억 등 전체 범죄 액수 2000억 달할 듯

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사진**)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금액이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 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석채 전 KT회장 구속영장**

한편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한 당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고모부 숙청 후 첫 외국손님 맞은 김정은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8일 평양체육관에서 미국프로농구 출신 데니스 로드먼과 농구 경기를 관람하다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 왼쪽은 부인 리설주. /조선중앙통신

## "좋은 계절에…" 북, 설 이산상봉 일단 거부

북한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10일 실무 접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9일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해 설 무렵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 것이 날씨가 춥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설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가 진정으로 분열의 아픔을 덜어주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남측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과 상반되게 새해 벽두부터 언론들과 전문가들, 당국자들까지 나서서 무엄한 언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총포탄을 쏘아대며 전쟁 연습을 벌였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남측에서 전쟁 연습이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최근호기자

8일 전 미국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얼굴을 가린 채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 9급 공무원→5급 25년 걸린다

### 30년차 월급 평균 442만원

우리나라 9급 공무원의 평균 초임은 세전 월 1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근무해야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6~8월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53만7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방공무원은 100만647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휴직 인원 4만7987명을 포함한 수치다.

평균 연령은 43.2세였으며 여성의 비율은 41.4%로 2008년 40.6%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5.2년이, 7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2.1년이 걸렸다.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 초임 평균 임금은 세전 월 156만원이었다. 10년차는 274만원을, 20년차는 356만원을, 30년차는 월평균 442만원을 받았다. /조민준기자 ro.kim@

다문화가정에 보낼 사랑의 선물 9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여성봉사자들이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 건강보험료 이달 봉급부터 평균 1570원 인상

이번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역시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지난해보다 1570원 올랐으며 지역 가입자가 내야 할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360원 인상된 8만2490원으로 집계됐다.



##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 295개 기관에 가이드라인 순직시 가산제도 없애기로

그간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퇴직금 누진제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순직·퇴직 시 별도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최근 29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퇴직금은 예산 편성 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키로 했다.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앤다.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균기자

## '과학인재' 군에서도 실력 키운다

### 전문 사관·부사관 제도 도입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군대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 군 복무 제도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군 입대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군에서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 사관과 정보보호 전문 부사관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28일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 2학년생이 과학기술 전문 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되면 3~4학년 동안 국방 과학·군사 훈련 등 교육을 받고 졸업한 뒤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연구시설에 소위로 임관한다. 제대 후에는 군 복무 시 익힌 과학기술을 이용해 창업하거나 산업현장에서 과학기술 인재로 활동할 수 있다. /조성진기자 3k@

## '회삿돈 101억 횡령' 황두연 불구속 기소

대입' 생이 잊을라 9일 오후 진행된 서울시립대학교 정시모집 예체능계열 실기고사에서 수험생이 환경조각과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이권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황두연(51) ISMG코리아 대표가 결국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개인적 용도로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외 회사 10여 곳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101억6800만여 원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생활비와 카지노 게임비 등 각종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8개 회사의 자금 16억9400만여 원을 빼낸 의혹도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 방송대 등록금 올해도 30만원대 동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6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30만원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400만원이 넘고, 사이버대학이 150만원 정도 하는 것에 비하면 방송대는 각각 10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다.

2014학년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을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 35만7000원, 자연·교육계열 37만2700원. 선취업-후진학 신규 학부의 경우 신입생 모두에게 40%의 장학 혜택을 제공해 실부담금 68만1900원으로 책정됐다.

장학금 혜택도 다양하다.

방송대 재학생 중 연간 장학금 수혜자가 8만 명에 이르고 장학금 외 교육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 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학비감면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 출생**

1835년 1월 10일 일본 메이지시대의 계몽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태어났다. 미국을 여행하고 유럽을 견문하여 '서양사정' 등 저술한 그는 일본의 부국강병과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를 지향한다는 '탈아입구(脫亞入歐)'론을 주장해 일본의 극우 제국주의와 조선 침략을 정당화한 대표적 장대의 사상가였다. 후쿠자와는 지금도 일본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일본 지폐 1만 엔 권에 얼굴이 새겨져 있다.



실감나는 구조훈련 경기도 소방 특수구조대가 9일 오전 경기도 용인 아둔지수지에서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시민이 있다는 상황을 연출해 헬기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외입양 한국고아 24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③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김도현 목사는 "입양인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son@

### 뿌리 찾으러 오는 입양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 "고아수출대국 오명 그만"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고아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국전쟁 후인 1955년, 전쟁고아 8명이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지금까지 약 24만 명이 국내외에 입양됐다.

국내 첫 해외 입양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로 2003년 7월 문을 연 '뿌리의 집'은 부모를 찾거나 모국을 알고 싶어하는 입양인들이 한 번은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이다. 지난 10년간 30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해외 입양인들에게 숙소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김도현(60) 목사는 2005년 입양인들과 입양 관련 법을 살펴본 뒤 입양특례법 개정 운동에 뛰어들었고, 2012년 입양 아동의 권익 보장, 국외 입양 감축 등을 담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은 생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뒤 일주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고, 입양 과정을 신고제에서 재판을 통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례법 시행 전 미혼모는 출산 직후 등 떠밀리듯 입양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양인은 양부모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돼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복잡해진 입양 절차 때문에 입양을 쉽도 포기하고 오히려 많은 아기들이 버려졌다. 생모가 아기를 자기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출산 기록이 남게 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그는 "아동 유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전년보다 유기 아동의 숫자가 완만하게 증가했을 뿐"이라며 "입양특례법이 아동 유기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친엄마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입양인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혼모라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아도 되는 제대로 된 사회적 양육 시스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 전통시장 원스톱 배송 시내 어디든 OK

### 부전마켓타운 부산 전역 시행 | 시, 웹서비스 구축 예정

전국 전통시장 최초의 원스톱 공동배송서비스 시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부산 부전마켓타운이 서비스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한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6개 전통시장으로 이뤄진 부전마켓타운은 지난해 9월 원스톱 공동배송서비스를 구축하고 그동안 부산진구 관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즉 직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까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1800여 건에 달하는 등 서비스 이용 수요가 매월 계속 증가했고 다른 지역 주민의 서비스 확대 요청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공동배송서비스 부산 전역 확대 시행을 위해 '공동배송 웹서비스'(이하 '웹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웹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은 인터넷, 스마트 앱, 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상품 주문이 가능해지고 배송센터는 전산 시스템으로 주문 현황을 파악해 고객에게 직배송해주는 실시간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웹서비스 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비용 등 사업비 9200만원을 지원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쇼핑 환경을 조성, 시민이 쉬고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부전마켓 상인회는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배송서비스 운영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산 전역 대상 식자재(식당 등) 고정 고객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학생에 기술창업 노하우 알려드려요

### 부경대 신학기 강좌 개설

대학생들에게 창업 기획과 경영, 재무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술 창업의 노하우를 집중 교육하는 이색 전공이 신설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경대는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졸업 후 기술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창업연계전공'을 올해 신학기부터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공계와 자연계, 예체능계 학생들이 자신의 주 전공에서 배운 전문 지식(기술)과 함께 대학에 개설된 다양한 창업 관련 과목을 두루 이수해 기술 창업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연계전공은 청년 기업가 정신 같은 창업자 자세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상법, 기업윤리 등 사업 환경 이해 ▲창업 기획 및 평가, 기술 인큐베이팅 특허와 창업 등 창업 준비 교육 ▲마케팅 및 재무관리 등 본격 경영을 위한 기초 교육 등 창업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창업 사례 분석과 창업 실습, 인턴십 등 창업 심화 과정을 거쳐 시장조사론, 경영정보론, 전자상거래, 생산 운영 관리, 글로벌 협상 전략, 광고론 등 창업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도 교육한다.

여기에는 주관 학부인 경영학부를 비롯해 국제통상학부, 법학과, 시스템경영공학과, LINC사업단, 인재개발원 등이 참여한다. /정혁균기자

**해상밀수 단속 쾌속 감시정 취항** 9일 취항한 부산경남본부세관 소속 감시정 '선정호'. 관세청의 독자적인 설계로 제작된 해상밀수 단속 전용선박으로 최신형 항해 장비와 통신장비를 탑재했다. 고성능 CCTV 카메라와 야간 감시카메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취항한 감시정은 컴호와 같은 계열의 쌍둥이 2척이다. /연합뉴스

## "북항 재개발 공업지역 활용 안된다"

### 여야 한목소리 질타 쏟아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일부를 공업지역으로 활용하려는 부산시의 북항 종합개발계획 구상이 지역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디자인특위의 철회 촉구에 이어 하태경(해운대 기장을)새누리당 의원은 9일 '북항 종합개발계획 재검토 촉구'라는 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시민 친수공간과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역 일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북항 재개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7일 자체 보고회를 연 북항 일원 종합개발계획이 깊은 우려를 하게 한다"며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에 대비해 자성대 부두 등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158만3100㎡ 면적의 부지를 공업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계획의 주요 골자이지만 부산 시민의 여건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고민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높이 살 만하지만 친수공간과 해양 문화 관광 명소로 개발할 북항 재개발 1단계 지구 옆에 공업지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균형을 잃은 구상이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지역 롯데백화점 "향토기업 기 살리자"

### 트렉스타 특별행사 마련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이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향토기업 기(氣) 살리기' 행사가 새해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된다.

올 해의 첫 행사는 지역 향토기업의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례로 꼽히는 트렉스타 특별행사.

9일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트렉스타는 지난해 경기 불황과 동종 업계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독보적인 신장률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입점해 있는 주요 향토기업 매출이 1%대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렉스타 매출은 2012년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크게 증가한 것.

특히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아웃도어 상품군 전체 신장률이 21%(1~12월 누계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70%가 넘는 신장률을 기록한 트렉스타의 매출은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대형사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앞세우는 스타 마케팅 대신 기술력과 제품력에 집중한 트렉스타의 영업 전략과 이를 지원하는 롯데백화점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 활동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트렉스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네스핏 기술을 적용한 등산화와 다양한 종류의 등산 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 롯데백화점 제공

아울러 남성 캐주얼 상품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산지역 향토 패션기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주)세정의 '인디안'과 건강 침대 상품군 가운데 부동의 1위, 전체 가구 상품군에서도 2위를 기록한 '흙표 흙침대'도 앞으로 특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은 1바 진세일 기간 신년 첫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행사로 지난해 선전한 트렉스타 행사를 연계해 진행한다.

롯데 광복점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8층 행사장에서 '트렉스타 특집전'을 열고 다운점퍼, 바지, 등산화 등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동래점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층 행사장에서 트렉스타를 비롯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하는 '아웃도어 시즌 마감전'을 열어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부산본점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트렉스타 단독으로 7억원 물량을 동원해 진행하는 '부산향토기업 트렉스타 초특가전'을 열고 티셔츠 3만원, 등산화 5만원, 다운점퍼 14만원 등 겨울 이월 품목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고, 행사 기간 중 바지, 재킷과 등산화를 각 3만원, 스틱 2만9000원에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

/정혁균기자 jhk@metroseoul.co.kr

## 공연예술 입주단체 모집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남송우)에서 위탁 운영 중인 '감만 창의문화촌'이 공연 분야를 대상으로 입주 단체를 모집한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감만 창의문화촌에는 현재 시각예술, 공연,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60여 명(14팀)이 입주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2개의 컨소시엄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산복도로에 보행데크 생긴다

## 길이 300m…컴퓨터과학고 옥상엔 전망대·쉼터 등 조성

도로 폭이 좁아 차와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교행하는 부산 산복도로에 산비탈을 활용한 보행데크가 설치된다.

부산 동구는 9일 망양로에 보행데크와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 2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행데크는 길이 300m로 산복도로 옆 산비탈에 지지대를 설치해 만드는 것이다. 기존 도로와 겹치지 않으면서 비탈길 3~4m 높이에 새로운 보행로가 설치되는 셈이다.

보행데크 설치로 필요가 없어진 기존 도로 옆쪽 갓길 보행로는 지선 재배치를 통해 하나로 합쳐 60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산복도로에는 그동안 갓길 무단 주정차로 지선이 좁아지고 보행자들이 차도로 넘어가 걷는 등 불편이 컸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또 노상주차장 조성에 보상비 등이 들지 않아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보행데크를 전망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또 비탈길 높은 곳에 위치해 원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부산 컴퓨터과학고의 옥상에 전망대와 쉼터,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 품격에 정성 더한 한우 선물세트

### 롯데호텔부산 델리카한스 다양한 상품 선보여

롯데호텔부산 델리카한스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정성 가득한 설날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선물세트는 예년에 비해 한층 엄선되고 정갈해진 선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호텔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한우 세트가 더욱 업그레이드됐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델리 한우 정육 세트'는 등심, 안심, 채끝, 살치살, 부채살, 업진육, 치마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마블링, 선도, 식감 등 모든 면에서 롯데호텔부산 조리장이 적극 추천하고 있다. 가격은 90만원.

'명품 한우 정육세트(부산 56만원)'는 안심, 갈비, 일등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우 안심 세트는 42만원, LA 갈비 세트(28만~33만원)가 눈길을 끈다.

국내산 참조기를 영광 천일염을 사용해 전통 굴비 제조법으로 만든 영광굴비세트와 최고급 전복세트가 27만원, 가지런하게 빽빽한 빛 고운 남해 죽방 멸치세트는 42만원이다.

특히 최근 주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천연 조미료는 금굴, 홍합, 미더덕, 멸치 등을 그대로 분쇄해 고유의 맛, 향, 영양소가 살아있어 웰빙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가격은 13만원이다. 환자나 어르신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복죽 세트가 올해 새로 선보이며 가격은 20만원이다.

명품 한우 정육세트(위쪽), 프리미엄 견과. /롯데호텔부산 제공

젊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햄퍼 세트는 13만원부터 20만원, 건강에 좋은 백화고는 22만원, 견과류 세트는 6만원부터 10만원이다.

이 밖에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낙동 김, 기장 미역 등의 상품을 포함해 녹차, 와인, 전통주 등 약 5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으며 1월 10일까지 사전 예약 시 10%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문의 및 예약 (051)810-6490 /황석준기자

**캐릭터 아동의류 40% 세일** 9일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6층 아동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화려한 캐릭터 모양이 들어간 의류를 고르고 있다. 신세계센텀시티는 오는 10~12일 비이드키즈 특별 할인행사가 연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기존 30% 세일에 추가 4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신세계 센텀시티 제공

#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전국 첫 과태료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 6일 납부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부산시 관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해 아동 친모의 사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피해 아동을 24시간 보육했다.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고 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의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조치는 보육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직무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가중 처벌,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래에 훈육 차원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퇴소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 중이고, 학대 행위자인 아동의 친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중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 토요박물관 교실 운영

부산시립박물관(관장 박방용)은 9일 '2014년 토요박물관 교실'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시작하는 토요박물관 교실은 초등학생과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박물관 제1전시관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 공동주택 피난시설 갖춘 곳 23.8%

부산지역 공동주택 중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 가능한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2일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북구 화명동 모 아파트 화재 이후 부산지역 3445개 단지(9138동)를 대상으로 피난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23.8%인 819단지(4935동)만이 피난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피난시설을 갖춘 곳도 748단지(3844동)는 경량식 칸막이가 전부였다.

별도의 대피 공간을 갖춘 곳은 전체 조사 대상의 1.9%인 65단지(500동), 인접 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시설이 있는 곳은 조사 대상의 0.2%인 6단지(51동)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화명동 아파트 화재 당시 가벼운 충격만으로 열 수 있는 베란다로 피신할 수 있는 경량식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지만 피해 가족이 이를 사전에 인지 못 해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하 소방서를 통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난시설 안내를 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안내 표지와 화재 예방 스티커 부착을 촉구하고 관리비명세서에 피난시설 안내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 market index (9일)

| 코스피 | 코스닥 |
| --- | --- |
| 1946.11 (-12.85) | 511.80 (+1.82) |

| 금리 | 환율 |
| --- | --- |
| 2.90 (+0.04) | 1063.00 (-3.00) |

### 뉴스 & 뉴스

#### 설 자금 30조 중기에 지원

● 은행권이 설을 맞아 중소기업에 30조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은 설을 맞아 30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규로 지원할 예정인 자금이 12조7000억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17조7000억원이다. /정윤형기자

#### 지난해 건설사 612곳 폐업

● 오랜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문 닫는 건설사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건설업계 수는 5만926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만9877곳에서 612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건설업계 수는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 6만538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부동산 경기 퇴행과 업계 난립에 따른 경쟁 격화, 물량 감소로 인해 건설업체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또 지난해 부도율은 0.3%를 기록, 156개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됐다. /박선옥기자

#### 고액 전세세입자 대출 제한

● 앞으로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수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대출은 전면 중단되며 4억원 이하 전세에 대해서도 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낮출 방침이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도 까다로워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금융 당국이 이처럼 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1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옥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자센터 02)721-9868
2002년5월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가00400

## 내년부터 '휴가비 25% 국가가 지원'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받고 휴가를 떠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2015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 7월까지 시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범 도입에서는 휴가비 40만원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각각 50, 25, 25%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휴가비가 적립된 신용카드로 국내 숙박, 레저, 테마파크, 교통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에서는 3500여 명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 중 1.7~3%가 휴가비를 지원받을 경우 연간 여행 지출액은 2조~3조6000억원에 달하고 생산 유발 효과는 3조4000억~6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현기자

# 이번엔 상장폐지, JS 두번의 배신

### LS그룹 "도의적 책임" 주당 6200원에 공개매수 결정
### 소액 주주들 "순자산가치로는 주당 1만1400원" 분통

최근 원전 케이블 납품 비리로 주가가 급락해 투자 손실을 입은 JS전선의 소액투자자들이 이번엔 JS전선 상장폐지로 보유 주식을 헐값에 처분할 위기에 놓였다.

소액주주들은 상폐 공개 매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원성을 토로했으나 JS전선의 대주주인 LS그룹 측에서는 "시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6일 LS그룹은 계열사 JS전선이 원전 케이블 납품 비리에 연루된 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고 JS전선의 모든 신규 수주를 멈추고 이 업체 주식을 6200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JS전선의 소액주주들은 LS그룹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LS그룹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한다.

구자열 LS그룹 오너 일가 7명은 JS전선의 발행 주식 30.08%에 해당하는 342만2455주를 공개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수가를 6200원으로 결정했다.

유통 중인 JS전선 주식 중에 LS전선 미소유분을 전부 사들여 최대한 빨리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 위해 공개 매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된 JS전선의 지난 6일 종가는 5300원이었다. 따라서 LS그룹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는 시가보다 높은 셈이 된다.

그러나 JS전선의 소액주주들은 주당 순자산 가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기업 지배구조 컨설팅업체인 네비스탁에 따르면 JS전선의 순자산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3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JS전선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를 발행 주식 총수 1138만 주로 나눈 결과 1만1428만원으로 집계됐다. LS그룹의 제시가보다 1.84배 높은 수준이다.

JS전선의 주가는 지난해 초 9000~1만원대에서 거래됐으나 원전 납품 비리가 불거지면서 지난 11월 3000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2007년 증시 재상장 당시의 공모가(2만4000원) 수준까지 밀려난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결국 LS그룹은 경영진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한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 변상시키면서 지난 6년간 JS전선에 배당이익 등 자산들의 실익은 고스란히 챙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LS그룹 측은 "단순하게 종가를 기준으로 공개 매수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물이 몰린 지난해 9~11월 주식 손바뀜까지 고려했다"며 "당시 손바뀜이 1.5회 일어났기 때문에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산 일부 주주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현정기자 hjlee@metroseoul.co.kr

전국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 전국 아파트 가격이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호재를 업고 19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상승폭이 전 주에 비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면서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 산모교실 가는 진짜 이유, 아셨죠?

**전순이 주부 경제학**

### 만만찮은 출산·육아비 샘플 챙기고 중고 활용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주부들은 다 알 것이다. 아기를 출산하고 기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 역시 매달 날아오는 카드 고지서를 보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출산·육아용품 비용,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라면 산모교실을 적극 이용해보자. 산모교실에선 출산과 모유 수유 방법, 아기 돌보기, 건강관리 등에 대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특히 강좌가 끝난 뒤에는 기저귀, 가제 수건, 물티슈, 스킨케어 제품 샘플도 챙길 수 있어 쏠쏠하다. 이것들만 잘 모아도 한동안 기저귀와 물티슈 등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품을 많이 주는 산모교실에 참석한다면 경품 추첨을 통해 뜻밖의 횡재도 기대할 수 있다.

출산용품 가운데 고가품인 유모차와 카시트, 아기띠 등은 주부들의 고민거리다. 잘나가는 해외 유명 브랜드, 멋있는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스럽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지인에게 최대한 물려받는 것이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 중고 육아용품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싼 유축기 역시 고민거리 중 하나다. 각 구청에서는 출산 후 모유 수유를 돕기 위해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단 대기 순서가 많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놓으면 빠른 시기에 대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차곡차곡 아낀 돈으로 아기 통장을 만들어 아기 장래 학비로 선물하면 어떨까. 아기에게 더 멋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진지기자

## 대형주 쉬는새 중소형주 뜬다

연초 국내 증시에서 실적이 단단한 중소형주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형주의 실적 성장이 주춤할 것이란 전망에 우량 중소형주로 눈을 돌렸다.

먼저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중소형 IT 부품주가 연초 유망주로 꼽혔다.

이민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컴퓨터·서플·디스플레이·유기발광다이오드(LED)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목이도 빛을 발하는 경기방어주에서도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이 유리할 전망이다. KTB투자증권은 이날 "올해 음식료 업종은 가격인상 효과와 판매량 회복, 곡물 가격 안정, 원화 강세 등 우호적인 환경에 있긴 하지만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견실한 중소형 음식료주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 몸값 낮춘 K9 "제네시스 인기 게 섰거라"

## 기아차 2014년형 출시…대형차 시장서 현대차 질주에 반격 예고

기아자동차가 현대 제네시스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K9 2014'를 내놓고 반격에 나섰다. 현대 제네시스는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대형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델. 기아차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K9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한편, 가격을 조정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공개된 K9 2014의 외관은 달라진 앞모습이 먼저 눈에 띈다. 우선 라디에이터 그릴의 모양을 호랑이 코 모양에서 직선형으로 바꾸고 그 안에 호랑이 코 모양의 크롬 장식으로 단장했다. 내부 그릴 또한 기존의 세로형에서 크롬 격자 형상으로 바꿨다. 북미 수출형은 별전 모양 그릴을 적용했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었다.

헤드램프에 달린 면발광 타입 LED 포지션 램프는 길이가 연장됐고, LED 방향지시등의 위치는 바뀌 전면부를 더욱 넓어 보이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헤드램프 아래쪽에 있던 LED 주간주행등을 범퍼 내의 안개등 위쪽으로 옮겼다.

측면부의 경우 펜더 가니시의 크롬 테두리 두께를 조금 얇게 바꿨고, 후면 테일램프의 방향지시등 렌즈 커버를 화이트 컬러로 변경했다.

실내는 블랙 하이그로시(고광택) 재질의 센터페시아와 함께 주요 재질을 고급화했으나 디자인의 큰 변화는 없다. 대신 기존에 없던 파노라마 선루프(100만~120만원)를 전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추가했다.

편의장비도 기존 모델보다 더욱 강화됐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를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는 한편 9.2인치 내비게이션은 3.3 모델 이그제큐티브 트림부터 기본 적용했다.

또 ▲협방향 장애물 감지 기능이 추가된 후측방 경보 시스템 ▲동승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위치 설정, 헤드업 디스플레이, 실내조명 밝기 설정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 ▲뒷좌석 암레스트 USB 충전 단자 등을 추가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K9 2014는 기존 6개의 트림을 5개로 단순화했다. 우선 3.3 프레스티지 모델에 카드 타입 스마트키를 없애는 대신 전동식 트렁크를 추가해 4990만원으로 인하했다. 3.3 이그제큐티브는 내비게이션을 기본 장착하면서 절반 정도의 인상분만 반영해 559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3.8 모델은 6260만원의 노블레스 트림을 신설해 현대 제네시스에 맞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기아차는 K9 2014 출시와 함께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9층에서 고객들이 최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K9 살롱 드 나인(K9 Salon de Nine)'을 운영한다.

K9 살롱 드 나인은 ▲칵테일바 ▲바버샵 ▲슈케어 ▲네일러 스타일링 코칭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구성돼 있으며, 기아차는 40~50대의 자사 고객 및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K9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K9만의 품격과 리더 이미지를 담아낸 'K9, 조용한 품격(Quiet Dignity)'이라는 프리미엄 스타일북을 제작해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중후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돌아온 K9 2014는 기아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치열해진 대형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9 2014의 가격은 3.3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Prestige) 4990만원, ▲이그제큐티브(Executive) 5590만원이고, 3.8 모델의 경우 ▲노블레스(Noblesse) 6260만원 ▲VIP 6830만원 ▲RVIP 7830만원이다. 경쟁차 종인 현대 제네시스는 4660만~6960만원이다.

/이재복기자 ferrari6@metroseoul.co.kr

# 드디어 '은마'가 움직인다

## 강남 3구 재건축 속도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달 2일 총회를 열고 새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104명을 선출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안전 진단까지 통과하고도 경기 침체 및 정부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번 추진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대치동 쌍용아파트도 추진위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2월께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을 뽑는 선거 일정을 잡아 3월 선거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르면 상반기를 전후해 조합 설립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만큼이나 강남 재건축을 대표하는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5단지도 지난달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현재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 계획을 앞두고 있다.

또 가락동 시영아파트도 최근 송파구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고, 연내 관리처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 환수금을 면제받는다는 점도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의 고삐를 죄는 이유다. 올해 말까지 인가를 받지 않으면 내년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당하기 때문이다.

/박선옥기자 pso7523@

## 외국서 보편화 '주택임대관리업' 다음달 첫 도입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주택임대관리업이 다음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라 그 효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다. 이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의 임대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징수나 전월세 주택의 개보수 등 골치 아픈 일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박선옥기자

**기준금리 연 2.50%' 8개월째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8개월 연속 동결했다. /연합뉴스

# 총수 주식자산 증가액 'SK>KCC>신세계'

## 지난 한해 평가액 분석

지난해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자산이 3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의 지난해 연초 주식자산은 1조9885억원이었지만, 연말에는 2조5683억원으로 5797억원(29.15%↑) 많아졌다.

증가율로 볼 때 정몽진 KCC 회장이 연초보다 50% 넘게 오른 반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현정은 현대 회장의 연초 대비 연말 주식평가액은 반 토막이 나 대조를 보였다.

기업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2013년 30대 그룹 총수의 연초 대비 연말 주식평가액 분석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30대 그룹은 작년 연초 기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했고 보유 주식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자료를, 주가는 해당일 종가 기준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30대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32조6735억원이었는데 연말에는 33조1892억원으로 5157억원 증가했다.

작년 주식평가액이 1월 2일 기준 대비 12월 30일에 가장 많이 오른 30대 그룹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SK C&C 주가가 연초 10만4500원에서 연말 13만5000원으로 높아지며 주식평가액도 크게 늘었다.

정몽진 KCC 회장도 연초 대비 연말에 3110억원이나 급증했다. 정 회장의 경우 연초 5642억 원에서 연말 8753억원으로 55.13%나 고공 상승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연초 1조5183억원에서 연말 1조7186억원으로 2002억원(13.19%) 늘어났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연초 6조6819억원에서 연말 6조9368억원으로 2548억원 소폭 증가(3.81%)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 역시 5894억원에서 6664억원으로 770억원(13.06%) 많아졌다.

/김버균기자 kuest@

# 음원시장서 '소리 키우는' 소리바다·벅스

## 이동통신 3사가 미는 멜론·지니·엠넷 아성에 개성있는 마케팅으로 승부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부동의 1위는 멜론이다. 업계에서는 멜론의 점유율을 60%로 보고 있다. 벅스와 엠넷이 10%대 점유율로 2위 싸움을 하고 있고 소리바다와 지니가 5% 점유율에서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멜론은 SK텔레콤, 지니는 KT, 엠넷은 LG유플러스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어 여유가 있지만 벅스와 소리바다는 고군분투를 하는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벅스와 소리바다가 개성 있는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네오위즈가 서비스하는 벅스는 본질에 충실하는 이른바 '기본기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수퍼 사운드' 캠페인이다. 이용자에게 보다 참신된 음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09년 업계 최초로 무손실 원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 노하우를 살렸다.

우선 국내 최대 규모인 25만 곡의 고음질 원음 포맷 플락(FLAC·Free Lossless Audio Codec)을 확보해 16비트 FLAC과 24비트 FLAC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스튜디오 원음 수준의 음질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풍부한 생동감과 공간감은 물론 뮤지션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에서도 향상된 음질을 제공한다. 디지털 노이즈를 최소화해 풍부한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레드손'을 업계 최초로 적용했다.

소리바다는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1위 이마트와 손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마트 알뜰폰을 구매하면 이마트 전용 '소리바다 앱'을 제공해 매월 무료 20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리바다 무료 서비스는 이마트 알뜰폰 회원 중 스마트폰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해외 업체인 구글 뮤직, 스포티파이와 음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구글 뮤직은 지난해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스포티파이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30여 국에 진출해 가입자 2400만 명을 확보한 플랫폼이다.

벅스와 소리바다 관계자는 "거대 이통사를 끼고 있는 브랜드와 경쟁하기가 버겁지만 참신한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춥지 않아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코리아스타일위크' 런웨이 컬렉션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란제리를 선보이고 있다. 신진 인디 디자이너를 발굴 및 육성하고 브랜드와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2일까지 150여 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 '뒷돈 받는 블로그' 그후…

### 전문 블로거들 포스팅에 기업 협찬글 여부 밝혀 네티즌들에 신뢰감 키워

"유명 블로거들이 광고성 글만 올리는 시절은 옛말!"

최근 유명 블로거들이 올리는 다양한 분야의 포스팅(블로그에서 사진, 영상, 글 등을 작성해 게시하는 행위)을 살펴보면 광고성 글인지 실제로 체험하고 느낀 바를 객관적으로 작성한 글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블로거들이 공개적으로 협찬성 글인지 본인이 직접 객관적으로 쓴 글인지 공개하고 있기 때문.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선정하는 파워블로그로 꼽히면 늘상 기업으로부터 유혹의 손길을 받기 마련이었다. 신제품 출시의 경우 각 기업에서는 블로거들에게 제품을 나눠주며 이용하고 사용기를 올려주길 희망했다. 물론 긍정적인 내용만을 바랐다. 이 때문에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블로그 운영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대가를 받기도 했다. 돈이나 고가의 제품이 오가며 결국 해당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객관적인 제품의 평가보다는 좋은 점만을 강조하는 홍보성 글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전문 블로거의 글도 믿을 수 없다며 유명 블로거가 포스팅한 글에 대한 신뢰도가 급추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 블로거들은 소수의 문제되는 이들로 인해 정당하게 글을 올리는 블로거들도 오해를 받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전문 블로거들은 최근 자신의 포스팅에 광고성 글이라면 어느 업체에서 지원을 해줬는지, 일시적으로 제품을 제공받아 정보는 객관성이 보장되는 글인지 등을 공개하며 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최근 빛을 보며 네티즌들의 신뢰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한 전문 블로거는 "요즘 네티즌들은 거짓 포스팅을 한눈에 알아봐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기자 (gve4630)

# 공기업 올해 1300여명 채용

###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 기업당 평균 63명 뽑아

올해 공기업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공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 설문을 통해 '2014년 대졸신입 채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채용을 확정한 기업은 83.3%(30개사)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곳개사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없다'는 곳은 4개사로 나타났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채용 인력은 총 13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채용 규모(1187명)보다 12.3% 증가한 수준으로 한 기업당 평균 63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채용 예상 시기를 하반기로 밝힌 곳은 50%에 달했다. 상반기가 30.8%, 미정이 19.2%로 집계됐다.

한편 공기업 중 영어 면접을 시행하는 곳은 36.1%에 달했다. 어떨 중 '전체 사원'을 하는 곳은 19.4%였으며 '직무별 부분 시행'은 16.7%였다.

토익과 토플 등 외국어능력시험 점수에 제한을 두는 곳은 36.1%로 나타났다. 이들 중 토익 점수를 밝힌 12개사의 평균 점수는 742점으로 집계됐다.

신입사원의 연봉 수준을 밝힌 공기업은 전체 10개사로 평균 연봉은 300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유리기자 (yc/lee8)

# 슈피겐SGP, 11번가 가면 40% 할인

### 내달 9일까지 '2014의 기적'

모바일 액세서리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SGP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함께 2월 9일까지 '2014의 기적' 기획전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최신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최대 40%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

특히 추가 적용할 수 있는 2014원 즉시 할인쿠폰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3, 갤럭시S4, 아이폰5S 등 최신 스마트폰의 케이스와 필름, 액정보호 강화유리 등의 액세서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획전 제품 구매 후기를 남기는 고객 중 2014명을 추첨해 비타민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국현기자

## 올레tv모바일, 실시간 채널 9개 추가

KT미디어허브의 모바일 TV 서비스 '올레tv모바일'이 MBC 드라마, SBS 플러스 등 지상파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실시간 채널 9개를 추가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올레tv모바일은 총 71개 채널 수를 확보, 모바일 IPTV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채널을 서비스하게 됐다.

KT미디어허브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등록된 채널은 MBC 드라마, MBC 에브리원, MBC 뮤직, MBC 퀸, SBS CNBC, SBS 퀸 E(SBS E!), SBS 골프, SBS 플러스, SBS MTV 등 총 9개 채널이다.

지상파 채널만큼 고객 니즈가 컸던 지상파 MPP 채널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MBC 에브리원의 '주간 아이돌'이나 '엑소의 쇼타임(EXO's Show Time)'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들을 모바일에서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재원기자

한국다케다제약 '네시나정' 출시

## 당뇨병 신약 경쟁 불붙다

한국다케다제약이 국내 당뇨병 치료제의 대세로 자리 잡은 DPP-4억제제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지난 1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네시나정'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1일부터 25mg 제제를 기준으로 777원의 약가로 보험급여 적용도 받게 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은 네시나정과 함께 글리티존 계열의 약물인 액토스를 통해 당뇨병 치료제 분야에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DPP-4억제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네시나정은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DPP-4억제제 계열 중 유일하게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 메트포르민과의 병용 요법으로 설포닐우레아 계열인 글리피자이드와 비교해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냈다.

이춘엽 한국다케다제약 대표는 "다케다제약은 20년 이상의 연구와 신약 개발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네시나정이 당뇨병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시누비아(한국MSD) ▲가브스(한국노바티스) ▲온글라이자(한국BMS) ▲트라젠타(베링거인겔하임) ▲제미글로(LG생명과학)가 DPP-4 억제제로 출시됐으며 DPP-4 억제제+메트포르민 복합제로는 ▲시누메트(한국MSD) ▲트라젠타듀오(베링거인겔하임) ▲가브스메트(한국노바티스) ▲콤비글라이자(한국BMS) ▲제미메트(LG생명과학) 등이 있다.

네시나정은 DPP-4(dipeptidyl peptidase-4)의 기능을 억제해 인크레틴 호르몬인 GLP-1(glucagon like peptide-1)과 GIP(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eptide)의 불활성화를 지연시켜 인크레틴 호르몬의 연속된 분비를 도와 혈당을 조절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황재용기자

# "혁신 치료제 개발 힘쓸것"

**분사 1주 애브비 유홍기 대표**

## 사회적 책임·즐거운 일터 만들기 노력

애보트는 125년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제약사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 애보트는 그 역사를 뒤로하고 특허가 없는 의약품 비즈니스와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구분해 애브비와 애보트로 분사를 결정했다. 제약사로서의 가치 창출, 전문성 강화, 기업 혁신 등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분사 1년 후 본격적인 목표를 갖고 출발하는 유홍기(사진) 한국애브비 대표에게 애브비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애브비는 우리 사회의 건강 개선과 더 건강한 삶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처음이기에 많이 서툴렀지만 당찬 포부와 기대, 설렘을 안고 모두가 함께 만든 애브비의 첫해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분사 1년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자 유 대표가 지난 1년을 스스로 평가했다. 유 대표는 분사 후 애브비가 새로운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에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란다. 또 비즈니스적인 성장, 1년간 거둔 많은 결실도 보람 있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애브비의 치료제로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유 대표는 올해의 계획과 포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치료제를 통해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다. 앞으로도 치료가 힘든 질환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제와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약사면 제약사답게 제약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유 대표는 표적 치료제와 생물학적 제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병과 환자들의 의료적 요구를 끊임없이 화학하고 연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실 이런 애브비의 계획은 애브비의 강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애브비는 장기간 확립해온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C형 간염, 류머티즘 관절염, 판상 건선 등 다양한 질환 치료제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유 대표는 즐거운 일터를 강조했다.

유 대표는 "현재 시행 중인 패밀리 데이,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 등과 함께 직원들이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지속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회사와 환자에 대해 보여준 헌신에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제약사는 치료제를 통해 환자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이 지도 우리 주변에 많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

애브비의 비즈니스와 기업 문화,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 언제나 고민을 하는 유 대표. 올해 애브비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80세까지 확대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4명, 여자 397.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약 1805명으로 전체 평균인 405.1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암보험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서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정민기자 pjm1@

## 한미약품 업계 유일 CP등급 획득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직무교육 현장에서 CP 규정 준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BBB 등급을 획득했다.

한미약품은 2007년 CP를 첫 도입했으며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CP 시스템화를 진행했다. 그리고 최근 BBB 등급을 획득해 비교적 균형 있게 CP 체계를 갖췄고 운용 성과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제약사에 요구하는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클린 영업 정착을 목표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한 내부 시스템 강화 노력을 통해 제약업계에서 CP 등급을 유일하게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CP 확립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황재용기자

**뉴스 & 뉴스**

### 김똘미 사노피 상무 임명

●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가 의학부를 총괄하는 메디컬 디렉터(Medical Director)로 김똘미 상무를 임명했다. 김 상무는 지난해 1월 입사해 차세대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뛰어난 연구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는 이번 선임을 통해 '환자 중심주의(Patient Centricity)'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파클리탁셀' 등 특허출원

●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인 카엘젬백스가 난소암, 유방암, 비소세포성 폐암 등에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 '파클리탁셀'과 자사에서 연구 중인 신규 펩타이드의 결합체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펩타이드는 세포 침투 능력이 우수한 CPP(Cell Penetrating Peptide)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항암제를 체내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젬백스는 현재 이 펩타이드에 대한 해외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 metro global

## metro HongKong

# 運桔車翻側

欠缺公德

## metro Sweden

### Nära rekordmånga asylsö Sverige i fjol

### 스웨덴 난민 신청자 5만 명 넘어

지난해 스웨덴으로의 난민 신청이 5만 건을 넘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4% 증가한 5만 4259명이다. 시리아 내전의 영향이 가장 컸다. 시리아 전쟁의 영향을 받아 스웨덴으로의 난민 신청자가 2012년 대비 무려 109%나 증가한 1만6317명이다. 이밖에 국가 상실(팔레스타인 분쟁) 지위를 사유로 5921명이 신청했고, 에티오피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에리트레아에서도 4844명이 신청했다.

## metro Canada

### ionné

### 경찰이 노숙자 학대 동영상 논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 경찰관이 노숙자를 학대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를 통해 경찰이 노숙자를 학대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무려 38만 명이 이 동영상을 클릭했다. 동영상에는 길거리에서 한 경찰관이 노숙자를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설교하며 유둥을 고칠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촬영 당시 한파가 심했지만 노숙자는 반팔 티셔츠 하나를 입고 추위에 떨며 설교를 들었다.

## metro Brazil

Anvisa quer obrigar embalagens genéricas para maços

경고 사진·문구만 사용

### 담뱃갑 포장 하나로 통일

브라질 위생국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모든 담배의 포장을 통일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브라질 내 모든 담배회사는 자사의 로고 대신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진과 경고문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명은 모두 같은 글자 폰트와 크기로 인쇄해야 한다.

해당 제안은 지르세우 바르바누 위생 국장이 최근 브라질의 월간지 폴라 지 상 파울루와 한 인터뷰에서 처음 언급했다.

바르바누 국장은 "위생국은 국내외 포럼에서 해당 안을 홍보할 예정이며 법안으로 정식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위생국은 또한 '담배 감미료 첨가 금지 법안'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생국은 감미료 첨가 금지 법안과 함께 흡연자가 담배를 다 피우지 않고 버릴 경우 자동으로 꺼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사를 압박하고 있어 제조사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멘톨이나 계피 향 등이 첨가된 담배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변인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담배 제조사가 문을 닫게 돼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법안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에서 지난 2002년 흡연 경고 그림이 도입된 이후 성인 흡연율이 1989년 34.8%에서 2013년 22.4%로 대폭 감소했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 30분 간격 두 차례나 '귤벼락'

중국 고속도로 한곳서 화물트럭 잇따라 전복·주민들 손수레·봉투 들고 나와 '횡재'

중국에서 귤을 실은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고속도로가 온통 귤 천지가 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칭란 고속도로 유거우 미 매표소 부근에서 귤을 실은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됐다.

순식간에 수많은 귤들이 경사면을 따라 농지로 굴러 떨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지원 차량을 파견해 길가에 쓰러진 화물차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동시에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귤을 지키고 섰다. 운전기사는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다.

사고 차량 구조 지원을 위해 매표소로 가는 길은 잠시 통제됐다. 귤을 실은 차가 전복됐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속속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손에 담을 것을 들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귤을 주워가려고 상황을 지켜봤다.

한 간 큰 주민은 귤을 주워가려고 시도하다 경찰에게 들켜 쫓겨났다. 경찰은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물 강탈사건으로 이어져 이번에는 화물을 지키는 인력과 현장 질서 유지 인력을 나눠서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이 한창 정리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귤을 실은 화물차가 인근에서 전복됐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두 사고의 화주는 같았다. 사고 소식을 들은 화주는 다칭산 청과도매시장에서 곧바로 달려왔다. 현장에 도착해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던 화주는 오후 4시쯤 포장이 훼손된 귤을 주민들이 주워가도록 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귤을 신속히 치워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들은 만면에 미소를 띠며 달러와 쌀포대와 비닐봉투 등에 신나게 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손수레로 나르는 이들도 있었고 소형 화물차를 끌고 온 사람도 있었다.

연이어 발생한 '귤벼락' 사건 현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모두 정리됐다. 사고로 귤이 뭉개지면서 이 부근 고속도로가 온통 귤즙으로 뒤덮이자 교통경찰은 야간에 얼음이 얼 것을 대비해 제설제를 뿌리고 사고 지점 부근 차량에 감속할 것을 당부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연탄 3만장+풀무원 선물키트 나눔 행사 풀무원식품 이효율(중앙)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이동선(오른쪽) 상임이사에게 연탄 3만 장 및 풀무원 선물세트 전달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제공

# 즉석 국물시장 후끈후끈

## 본도시락 '묵은지김치찌개'로 출사표 청정원·대상 등과 뜨거운 경쟁

기상청은 지난 3일 '1개월 기상전망'을 통해 이달 내내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2월 초에는 기온의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업계는 요리하기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뜨끈한 국물 음식을 내놓으며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

본도시락은 지난달 16일 겨울 신메뉴로 '묵은지김치찌개' '버섯된장찌개'를 출시하며 국물 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공략한 제품은 찌개를 한 그릇씩 끓여내 깊은 맛을 담았다. 각 제품은 잘 익은 묵은지와 두부를 함께 끓여내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국물로 입맛을 돋우며, 버섯·호박 등을 넣어 국물 맛이 좋다.

대상 청정원에서는 기존 판매 제품보다 큰 사이즈의 '합국밥 큰컵' 3종을 선보였다. '얼큰육개장 국밥'은 진한 사골 육수에 매운 홍고추 맛을 더해 칼칼한 국물을 맛볼 수 있다. 신송식품도 끓는 물을 부어 먹는 '즉석국앤밥'을 판매 중이다. 끓는 물을 붓고 4분30초만 기다리면 간편하게 국밥을 즐길 수 있다.

대상FNF 종가집에서는 '버섯육개장'과 '사골 우거지국' 등 2종으로 구성된 '데이즈 간편국'을 출시했다. 파우치 형태로 이외에서도 간편하게 따뜻한 국물을 즐길 수 있다.

어묵 국물도 인기다. 사조대림에서 출시한 '대림 선 즉석꼬치 컵어묵 2종'은 기존의 컵어묵과 달리 종이컵 형태를 적용해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 미니스톱에서 판매하는 어묵은 가다랑어포와 다시마로 맛을 낸 일본풍의 국물 소스에 무 엑기스를 첨가해 진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장영일기자 press@metroseoul.co.kr

## 뉴스 & 뉴스

### 락앤락 21일까지 '새해맞이 최대 30% 할인'

● 락앤락이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인 락앤락몰과 전국 50개 직가맹점 및 백화점에서 '2014년 새해맞이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밀폐용기와 냄비, 프라이팬, 양념통 등 조리용품, 텀블러와 도시락을 포함한 보온용품, 프리미엄 내열유리 라인 등 베스트셀러 제품과 신제품 등을 최대 3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 미니스톱,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

● 한국미니스톱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는 8일 한국미니스톱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한국미니스톱은 본사와 1900여 개 점포를 기반으로 국내외 긴급구조 활동, 사랑의 국수나눔 자원봉사 활동, 희망풍차 기부 활동 등의 나눔 활동 외에도 이달부터 미니스톱 직영점 일부 점포를 시작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십자사에 후원한다.

### 맥도날드 행운버거·컬리 후라이 100만개 판매

● 맥도날드는 9일 고객들의 2014년 새해 소망 기원을 담아 한정 판매하는 '행운버거'와 '컬리 후라이'가 출시된 지 열흘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출시된 이 제품들은 행운버거는 쫀득한 쇠고기 패티와 특별 제작된 갈릭소스가 신선한 양파 및 양상추와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차별화된 한국적인 맛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 할인 받고 적립 받는 '쿠테크의 달인'

최근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과거 종이 형태의 쿠폰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모바일 쿠폰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용이 편리한 실용적 결제 수단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쿠폰의 종류 및 적용 대상 범위도 다양해져 쿠폰 하나로 똑똑하게 경제적 소비를 하는 '쿠테크(쿠폰+재테크)족'까지 생겼다. 이들은 쿠폰을 통해 가격 할인·포인트 적립은 물론 공짜 상품을 받는 등 소비 활동에 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여기에 소셜커머스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쿠테크족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졌다.

coupang WEmakePRICE TMON O'CLOCK

◆소핑·선물은 물론 이자트 관리비까지 … 만능 활용형

쿠테크족의 '핵심 소비층'은 '알뜰 주부'들이다. 주부 쿠테크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쿠폰 중 하나는 바로 백화점 상품권, 아웃렛 이용권과 같이 현금처럼 만능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이다. 상품권의 실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해당 장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확실히 적은 금액으로 실속을 챙길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 준비 철저형

전국 각지에 지점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쿠폰을 미리 구입해놓고 데이트, 모임 등에서 소비액을 줄이는 '준비 철저형' 쿠테크족도 있다. 계획에 없던 적은 금액의 소비를 할 때조차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스마슈머(smart + cosumer)의 일종으로 현금과 복합 결제가 가능하고, 특정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의 쿠폰을 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장영일기자

# 백수탈출주·짝만날주…'와인 덕담' 건네요

### 설 명절 위한 '신의 물방울'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설 명절로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다.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명절인 만큼 평안한 한 해를 기원하며 따뜻한 '덕담'의 의미가 담긴 와인 선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

◆취준생이여, 용기를 가져라! 최초의 스파클링 와인세트 버블넘버원 프리미엄

구직자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로 '친척 누구는 대기업에 취업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올 설 명절에는 성공의 의미를 담은 '버블넘버원'이 제격이다. 이 샴페인은 일반 샴페인보다 100년의 역사를 앞선 기술로 탄생한 최초의 스파클링 와인이다. 버블넘버원 프리미엄 1본입 세트 가격 6만5000원.

◆올해는 꼭 결혼하렴 … 이태리 스위트 세트 아만떼&봉봉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오랜만에 만나 결혼을 재촉하며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인사보다는 따뜻한 사랑을 담은 이태리 스위트 세트로 마음을 전해보자. 이태리 스위트 세트는 사랑스러운 연인을 뜻하는 아만떼 와인과 달콤한 캔디를 뜻하는 봉봉 와인 각 1병씩 총 2본으로 마련됐다. 이태리 스위트 세트 가격 4만원.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며 … 요리오 세트

'신의 물방울'에서 환상적인 와인으로 소개된 요리오는 다양한 식문화로 유명한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태리 요리와 한국 명절 및 일상생활의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레드와 화이트가 담긴 세트 가격 9만원. /장영일기자

# 요새 유행인데 촌시럽다꼬?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조금은 촌스럽지만 1990년대를 풍미했던 패션이 세련된 스타일로 탈바꿈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 '떡볶이 코트'로 불리는 더플코트는 물론 주인공 나정이의 레이어드룩, 배터리 청청 패션 등이 겨울 멋쟁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과거 학생들의 대표 아이템이었던 더플코트는 한동안 인기가 주춤하다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있는 더플코트들은 기존의 평범한 교복 이미지를 벗고 슬림핏으로 변신, 스키니진, 스니커즈 등 최신 유행 아이템과 매치해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 청청룩·나정룩…'응답하라 1994' 복고패션 스타일링 포인트

**◆촌스러움 벗은 아이스워싱 청청 패션**

드라마 '응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스타일 중 하나가 바로 '청청 패션'이다.

진한 청바지와 청재킷으로 대표되는 청청 패션은 이번 시즌 자연스러운 아이스워싱이 더해지면서 빈티지한 감성을 덧입었다. 그러면서도 장 장식이나 디자인 등 디테일을 통해 1990년대의 복고 느낌을 간직한 것이 특징이다.

청청 패션을 연출할 때는 상하의 컬러 밸런스를 맞추고 워커 부츠·스냅백 모자처럼 투박한 소품을 활용하는 게 멋스럽다.

**◆니트+셔츠 레이어드룩 재조명**

주인공 나정이가 즐겨 입던 '레이어드' 스타일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 시절 원색 티셔츠에 오버 사이즈 빈티 셔츠, 체크 남방에 니트 풀오버를 겹쳐 입는 게 유행이었다면 최근에는 깨끗한 화이트 셔츠에 니트를 매치하는 것이 대세다.

바나나리퍼블릭 관계자는 "셔츠와 니트 조합의 레이어드룩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며 "여기에 미니 플레어 스커트나 스키니진, 부츠 등을 곁들이면 사랑스러운 느낌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바른병원 강서점 척추강좌

세바른병원 강서점이 10일 오후 3시 본원 10층에서 '척추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이란 주제로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척추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일반인들에게 척추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바른병원은 이런 정보와 함께 수술 없이도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각종 시술의 특성과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는 김태익 세바른병원 강서점 원장이 맡아 ▲척추질환의 개요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 및 치료 사례 ▲척추질환 운동 치료법 소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2014년 달력·물티슈·볼펜·핫팩 수건 등이 제공된다.

## 금강보청기, CJ오쇼핑서 판매

금강보청기가 10일 저녁 11시50분부터 CJ오쇼핑에서 스타키보스보청기(12채널 12밴드)를 판매한다.

금강보청기는 이번 홈쇼핑 판매에서 권장 소비자가격이 410만원인 제품을 198만원으로 대폭 할인해 판매하며 소비자는 24개월 무이자(월 8만2500원)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착용 후 30일 동안은 100% 반품이 가능하며 금강보청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3회 제공된다. 문의 1588-5233

**대세꼬마 추블리 아빠랑 커플룩**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과 딸 추사랑의 패션 화보가 9일 공개됐다.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추블리 부녀'로 주목받고 있는 추성훈 부녀는 패션 잡지 그라치아와 함께한 스타일 화보에서 사랑스러운 부녀룩을 선보였다. 두 사람은 푸마 로고 티셔츠와 청치마로 통일감을 주면서 취하는 다르게 매치해 닮은 듯 다른 느낌을 연출했다. /그라치아 제공

## 르네상스 서울 호텔 '설 선물세트' 받고싶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설날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우선 호텔의 더 베이커리는 ▲최상급 호주산 갈비를 엄선해 마련한 '명품 갈비세트' ▲와인, 조골릿, 쿠키, 치즈, 올리브 오일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된 '르네상스 프리미엄 햄퍼' ▲세 가지 치즈와 칠레 명품 와인 알마비바 2009와 몬테스M 2009 레드 와인으로 구성된 '칠레 와인&치즈 세트' 등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이강주 전통주 세트'와 '복분자 및 매루수 세트'도 마련된다. 문의 02)2222-8654

## 냄새·각질…부츠 속 '발의 수난'

**겨울철 '풋' 관리 이렇게**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부츠는 따뜻하지만 통풍이 안 돼 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발 관리 브랜드 나인풋 관계자는 "부츠는 땀이 쉽게 차고 세균 번식이 빨라 발 냄새와 각질을 유발한다"며 "발 관리 제품으로 세균 및 냄새 제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약한 발 냄새의 원인은 땀과 세균. 부츠를 신을 때는 땀 흡수가 뛰어난 면 소재의 양말을 신어 발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한다. 또 신발을 자주 벗어주거나 항균·탈취 기능의 풋 미스트를 수시로 뿌린다.

피지선이 거의 없는 발은 쉽게 건조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꽉 막힌 부츠를 하루 종일 신을 경우 각질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각질을 방치하면 딱딱하게 굳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거나 갈라져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스크럽제로 각질을 제거한다.

사진=풋 제공

**땀 흡수 잘되는 면양말 착용**
**항균미스트 수시로 뿌려주고**
**주1회 스크럽제품 사용 권장**

심한 경우 발 전용 각질제거기를 활용하면 좋은데,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각질을 제거하면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가 뒤엉켜 벌어지거나 통증은 물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각질 제거 후에는 발 전용 크림으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준다. 특히 피부가 두꺼운 발뒤꿈치 등은 크림을 마사지하듯 여러 번에 걸쳐 바른다. /박지원기자

## '워터컷'으로 더 정교해진 아이스크림 케이크

배스킨라빈스(www.baskinrobbins.co.kr)가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콘셉트로 한 톡톡 튀는 디자인의 조각 아이스크림 케이크 및 캐릭터 아이스크림 케이크 13종을 새롭게 출시한다.

대표 아이스크림 케이크로는 '해피트리'와 '해피캐슬'로 세계 최초로 높은 수압을 이용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커팅 기술인 '워터컷' 방식을 도입해 입체적인 모양을 정교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해피트리(2만6000원)'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숲을 보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해피캐슬(3만3000원)'은 회전목마 모양의 조골릿 말 캐릭터 장식이 포인트다.

17세기 파리, 남자의 전설이 부활한다!

2014년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
HAPPY NEW YEAR 40% 할인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13.12.13~2014.2.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 달력 보고 웃다가 '119일' 방콕만 할라

올해 공휴일은 총 67일에 달한다. 주 5일 근무제를 하는 근로자라면 119일까지 쉴 수 있는 올해는 12년 만에 휴일이 가장 많은 해로 언급되어 연초부터 여행 마니아는 물론 일반인들도 들뜨게 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행복한 새해 달력을 보며 쉬는 날 여행을 통해 재충전과 휴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징검다리 휴일과 황금연휴가 다수 포진해 있어 장거리 여행까지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항공권 조기 예매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일부 인기 여행지행 항공권은 이미 예약이 50%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5월 황금연휴는 이미 제주 50% 홍콩 80%, 파리도 70% 예약 완료**

2014년 연휴는 가깝게는 1월 30일~2월 2일까지의 설날 연휴를 시작으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있는 5월에는 최장 6일, 지방선거일과 현충일이 있는 6월에도 휴가를 하루씩만 내면 5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된다.

## 쉬는 날 12년만에 최다…연초부터 여행예약 뜨거워 인기지역 동나기 직전

여기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연휴 앞뒤로 연차를 적절히 사용하면 더 많은 휴일이 생긴다.

인터파크투어의 경우 5월 2일부터 6일 석가탄신일까지 연휴의 경우 제주도는 50% 정도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국내선 항공사들에서 3만원대(왕복) 특가 항공권이 쏟아지면서 예약 시점이 더욱 빨라졌다. 해외 인기 여행지의 예약 상황을 보면 일본 35%, 대만 70%, 홍콩 80%, 방콕 75%, 단번 65% 파리 70%가 이미 예약된 상태다. 단거리인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장거리인 유럽 지역의 예약 상황도 상당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파크투어에서는 이미 8개월 전부터 2014 황금연휴 시즌별 항공권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투어 마케팅팀 조혜영 팀장은 "지난해 대표적인 황금연휴였던 추석 기간의 예약이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과 비교해 2개월 정도 더 빨라진 것으로, 이른바 '얼리버드' 여행객일수록 더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기 예약 경쟁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투어의 조기 예매 동향을 보면 길어진 휴가로 유럽 지역이 인기 여행지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럽 일주 여행 상품을 비롯해 개별 여행객들에게 인기 도시는 파리·프라하·로마 등으로 나타났고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꽃보다 누나' 덕분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도 인기 도시로 부상했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은 하와이·괌·사이판·푸켓·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PIC·클럽메드 등 올인클루시브 상품이 인기가 높아 예약율이 30%에 이른다. 단거리 인기 지역은 대만과 싱가포르가 우세했다. 대만은 2013년 꽃보다 할배 이후 관광객이 급상승한 곳으로 저렴한 물가와 짧은 비행 시간, 일본 여행 대체재 등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2014년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팀장은 "장거리 여행을 생각한다면 시간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여행의 기본"이라며 "항공사 홈페이지나 여행사들을 자주 방문하며 특가 기획전을 노려보는 것도 노하우"라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no@metroseoul.co.kr

## 영하 10도 되면 아이패드 경품

### 대명리조트 이벤트 풍성

대명리조트가 고객들을 위해 2014년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대명리조트는 우선 '비발디파크 2014 캐치캐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사진 공모 이벤트로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기 개성을 뽐내는 베스트 드레서&포즈 또는 비발디파크 스키월드에서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 중 1가지를 선택해 사진과 함께 응모하면 된다. 상품으로 2014~2015년 스키월드 시즌권과 2014년 오션월드 시즌권 등이 제공되며 당선작은 매주 월요일인 13일과 20일, 27일에 발표된다.

또 대명리조트는 '한파! 올라가라!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추위 타파 프로젝트'도 준비했다. 이 이벤트는 더욱 다양한 할인과 푸짐한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31일까지 비발디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 할인쿠폰을 내려받은 고객에 한해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가 되면 리프트 3000원 중복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쿠폰 사용 고객에게 미러리스 카메라(삼성 NX300)와 아이패드 등의 경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대명리조트는 다양한 패키지도 출시했다. 단양리조트에서는 '기차 타고 단양 8경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패키지가 출시됐으며 변산리조트는 리조트에서 일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힐링 패키지'를, 양평리조트는 가족·연인들과 함께 힐링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머무름 패키지'를 선보였다.

/황재용기자

## 세계의 이색축제 어디까지 가봤니

새해를 맞아 세계 곳곳에서 이색적인 축제가 펼쳐진다.

먼저 오는 19일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시티에서 '시눌록 페스티벌'이 열린다.

페스티벌은 아기 예수(산토니뇨 Sto Nino)를 기리기 위한 종교 축제로 축제에서는 세부민의 화려한 춤들을 감상할 수 있다.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과 함께하는 그랜드 퍼레이드, 산토니뇨를 찬양하는 미사, 아기 예수 상을 들고 춤을 추는 퍼레이드도 [illegible] 기다리고 있다.

또 오는 [illegible]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휘슬러 게이 윈터 프라이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페스티벌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스키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모여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축제 기간에는 스키대회, 카우보이&카우걸 파티, 풀 파티 등의 이벤트가 벌어진다. 특히 30일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섹시한 게이를 뽑는 '미스터 게이 캐나다 선발대회' 및 패션쇼가 진행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

## '제2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열린다

### 다음달 19일 프레스센터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다음달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개최한다.

콘텐츠대상은 한국의 우수한 축제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지역과 국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시상식은 지역축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축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준비된다.

시상은 ▲축제관광 부문(계절별 축제) ▲축제경제 부문(특산품·특산물 등) ▲축제콘텐츠 부문(참여·오락·관류 등) ▲축제예술 부문(각 장르별 문화·예술) ▲축제관객 부문(최다 방문 관객·최다 외국인 방문 관객) ▲축제공로 부문(신규 축제·전통 축제 등)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24일까지 후보 접수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대상 홈페이지(www.ekfc.or.kr/award)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 "뮤지컬은 내게 '신세계' 같다"

대사 많은 마리아 연기 걱정
소향이 도움 많이 받았어요
함께하는 재미 '또다른 매력'
:
홀로 음악 외로워져 팀 결성
사람 냄새나는 노래 부를것

사진/이완기(사운드오브뮤직)

##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첫 도전 박기영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저녁 공연 직전 만난 싱어송라이터 박기영(37)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하는 내내 아이처럼 해맑고 따뜻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아마 출산은 만에 더 복귀작으로 택한 이 작품에서도 매일 아이들과 함께해서인 듯했다. 그는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금쪽 같은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돼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게 됐다"면서 "이 뮤지컬을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금은 뮤지컬 삼매경 … 또 학교파**

처음 해보는 뮤지컬인 데다 출산 후 1년 만에 복귀해 무대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말에 자연스럽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제 갓 세 살이 된 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출산으로 몸무게가 18kg 불어난 상태였는데 모유수유를 열심히 했더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대신 딸이 보통 아이들의 몸무게 두 배 정도 되는 우량아가 됐죠. 그래도 너무 예뻐서 지난 1년간 딸과 한 몸이 될 정도로 매일 안고 다녔답니다."

그런 만큼 아이와 떨어져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다. 4일부터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쾌활하고 노래를 좋아하며 모든 것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을 가진 주인공 마리아로 출연 중이다.

지난 7일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프레스콜에서 공연하는 박기영. /손진영기자 son@

"뒤늦게 캐스팅이 돼 다른 배우들보다 연습량이 부족한데 대사량은 엄청나게 많고, 팔까지 떼놓고 오니 정말 힘들었어요. 다행히 딸은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봐주시고, 공연 연습은 마리아를 번갈아 연기하는 소향이 많이 도와줘 가능했죠."

지금은 뮤지컬의 매력에 푹 빠졌다. "늘 가수로 혼자 일하다 다른 배우들과 함께 뮤지컬을 해보니 무척 즐겁다"면서 "뮤지컬을 나중에 딸이 커서 볼 수 있도록 7~8년 후에도 하고 싶다"고 열의를 불태웠다.

**# 용사 '고아라 시작' 리메이크 뒤늦게 알아**

복귀 시점에 뮤지컬뿐 아니라 모든 일이 순조롭다. 히트곡 '시작'이 최근 뜨거운 화제몰이를 하며 종영한 tvN '응답하라 1994'에 주인공 나정 역을 맡은 고아라의 리메이크로 삽입됐다. 이 덕도 '시작'이 음원차트에 재진입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주변에서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실은 처음엔 제 노래가 드라마에 삽입된지조차 몰랐어요. 남편이 드라마를 보다가 알려주고, 팬들이 이야기해줘서 알게 됐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고아라씨에게도 고맙답니다."

지난달 말에는 오랜만에 신곡 '아파도 잠시더라'를 발매해 결혼과 출산 후 더욱 풍부해진 가창력을 뽐냈다. 가사는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이 무뎌진 여자의 마음을 담았다.

"가사처럼 아무리 힘든 일도 다 흘러가더라고요. 20대 때 회사에서 앨범을 내주지 않아 3~4년간 공백기를 가지고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변호를 맡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힘든 일들이 나중엔 오히려 내게 큰 복이 됐답니다."

최근에는 네뷔 주 자유으로 밴드를 결성했다. 스패니시 기타리스트 이준호와 베이시스트 박영식이 참여한 어쿠스틱 블랑이다. 4월 스페이스바움에서 어쿠스틱 블랑이라는 이름으로 첫 공연도 연다.

"언제부턴가 혼자 음악하는 게 외로워져서 팀을 만들었어요.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음악을 하면서 LP와 같은 고품질 음반을 내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을 살리는 음악을 해보고 싶어졌답니다. 기대해주세요."

/박은현기자 fe0427@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 솔직한 가사+귀에 감기는 멜로디

### 김도훈 발굴 첫 여성그룹 마마무 '행복하자마' 발표

국내 대표 감성 프로듀서 김도훈이 직접 발굴하고 제작한 첫 여성그룹 마마무(MAMAMOO)를 공개했다.

정식 데뷔 전인 마마무는 9일 인기 힙합·솔 가수 범키와 함께 부른 '행복하자마'를 발표했다.

'행복하자마'는 김도훈과 휘성과 거미의 '스페셜 러브' 등 작곡한 에스나와 함께 작업한 곡으로 비트의 포인트와 귀에 감기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떠나간 연인에게 전하는 솔직한 가사가 어우러진 R&B 곡이다.

범키는 지난해 '미친연애' '갖고놀래' 등을 히트시킨 가수로, 데뷔도 하지 않은 여성 그룹이 그와 함께 입을 맞췄다는 점에서 가요계에 화제를 몰고 있다.

마마무의 소속사 WA엔터테인먼트는 "세계 공용어이자 세상에 태어난 아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인 마마(MAMA) 처럼 마마무는 자신의 음악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친숙하게 들려주겠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노래·춤 솔라이팅 능력과 개성으로 무장한 그룹으로 알려진 마마무는 정식 데뷔 전까지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발표해 실력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윤순호기자 suna@

## 연기도 팀워크도 '퍼펙트'

###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첫 대본리딩 모습 공개…"유쾌한 장면땐 서로 박수"

스타 배우들의 연이은 캐스팅으로 많은 화제를 낳은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의 첫 대본 리딩 모습이 공개됐다. 저마다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극의 기대감을 높였다.

'참 좋은 시절' 제작·출연진은 최근 여의도 KBS 별관 드라마 연습실에서 첫 대본 연습을 진행했다. 이날 김희선을 비롯해 이서진, 옥택연, 류승수 등 주연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연기자들이 대본 리딩에 참여했다.

주연들은 완벽한 대본 준비로 박수를 받았다. 김희선은 첫 연습임에도 생계형 대부업체 직원 차해원을 완벽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옥택연은 불의를 못 참는 상남자 강동희 역을 맡아 처렁처렁한 목소리로 연기했다.

이서진도 안정적인 연기력을 뽐냈다. 절제된 대사 표현으로 카리스마 검사 강동석을 표현했다. 류승수는 손짓을 하고 어깨를 들썩여 지방 행사 MC 강동탁 캐릭터에 맞는 리얼한 제스처를 선보였다.

대본 리딩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유쾌한 장면과 대사가 등장할 때마다 서로 돌아보며 박수를 치더라"면서 "휴식 시간에도 삼삼오오 모였다. 친근한 인사를 나누고 토론을 벌였다"고 귀띔했다.

'참 좋은 시절'을 집필하는 이경희 작가는 "작품을 준비하며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공부했다"면서 "예전보다 더 좋은 글을 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진원 PD는 "좋은 팀을 만나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참 좋은 시절'은 가난했던 한 남자가 검사로 성공한 뒤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가족의 가치와 사랑의 위대함, 내 이웃의 소중함, 사람의 따뜻함을 그린다. '왕가네 식구들' 후속으로 다음달 22일 첫 방송된다.

/유순호기자 yoo@metroseoul.co.kr

'참 좋은 시절' 이서진, 김희선(왼쪽부터) /KBS 제공

## 김재중 일본곡 '화장' 리메이크

JYJ의 김재중이 솔로 1집 리패키지 앨범을 발매한다.

솔로 활동을 하며 로커로 변신에 성공한 김재중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집 'WWW 후 원 의어'에 신곡과 일본 곡 '화장'을 리메이크한 곡 등을 추가한 리패키지 앨범을 20일 출시한다. 이번 앨범에 추가되는 두 신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야 하는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 '화장을 지우다'는 이름을 부제로 달았다.

김재중은 리패키지 앨범에 1집 타이틀곡 '저스트 어나더 걸'의 뮤직비디오 미공개 컷, 뮤직비디오와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이 포함된 DVD 등을 담는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재중이 신곡 녹음을 마쳤다. 이 곡은 겨울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락 발라드로 김재중이 작사했다. '화장'은 일본 곡 '케쇼'를 재편곡해 김재중이 직접 번안한 가사를 입혔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애절한 창법이 눈에 띄는 곡이다"고 밝혔다.

김재중은 1집으로 한터차트가 집계한 '2013 상어 어워드'에서 솔로 가수로는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르는 등 큰 성과들을 올렸다. /윤순호기자

## 장동건·송혜교 등 35명 성형외과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장동건,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을 비롯해 송혜교·김남길·수애와 소녀시대, 2PM, 원더걸스 등 아이돌 그룹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또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청구에 대해 "(블로그 글이) 원고들이 C성형외과에서 치료 등을 받았다고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는 지난해 6월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 등을 게재한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500만 원씩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정성운기자

**19금 이란 이런 것** 걸그룹 레인보우의 4인조 유닛인 레인보우 블랙 멤버의 파격적인 티저 이미지가 잇따라 공개됐다. 레인보우 블랙은 '19금' 섹시 콘서트를 전면에 내세운 그룹으로, 청순하고 앳된한 이미지의 오승아(왼쪽)는 데뷔 후 최고 수준의 노출로 180도 변신했고, 조현영은 세미누드 수준의 사진을 공개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레인보우 블랙은 김재경, 오승아, 조현영(오른쪽)에 이어 10일 마지막 멤버를 공개한다.

▶ 이럴 거면 옷은 왜 다 나오지 그랬어요.

/유순호기자

## '변호인' 다음달 북미 개봉

국내 극장가에 달아오르고 있는 영화 '변호인'(사진) 열풍이 북미로 번져간다.

'변호인'의 투자·배급사인 NEW는 9일 "'변호인'이 다음달 7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애틀랜타, 댈러스, 휴스턴, 시애틀과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에 개봉된다"고 밝혔다.

전 연령층의 폭넓은 호응으로 개봉 19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한 '변호인'은 입소문을 타고 해외 관객에게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의 북미 배급사 웰고USA의 도리스 파드레셔 대표는 "'변호인'은 용기와 인내, 인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다. 영화 속 송우석(송강호) 변호사가 보여준 도전과 용기는 많은 관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것이라 생각되며 북미 관객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웰고USA는 '도둑들', '신세계', '아저씨' 등을 북미에 배급한 회사다. '변호인'은 개봉 22일째인 9일 누적 관객 수 83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 CGV 中서 올 1700억 목표

멀티플렉스 체인 CJ CGV가 올해 중국에서 19개 극장을 새로 열고 17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CGV는 9일 "북미를 비롯한 동남아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CGV가 주요 거점 지역으로 중국 시장을 선정했다"며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해 지난해 매출인 800억원의 2배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CGV는 2006년 CGV상하이 따닝을 개관하며 국내 영화관으로는 최초로 중국 시장에 발을 들였고 이후 주요 지역에 연이어 극장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목표치인 16개 신규 오픈 목표를 달성하며 총 27개 극장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에는 최대 극장 체인인 완다, 국영 영화사인 차이나필름그룹(CFG) 등 223개의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CGV는 시장 진출 4년 만에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21계단 뛰어오른 14위(2.1%)를 기록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영화 시장이다. /유순호기자

# 1월 극장가 '영웅대첩'

### '엔더스 게임' 지난달 개봉 이어 '로보캅' 등 히어로물 관객맞이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은 슈퍼 히어로들이 겨울 극장가를 누빈다.

1987년 첫선을 보인 후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로보캅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액션 블록버스터 '로보캅'이 다음달 13일 개봉한다.

이번 영화는 인간도 로봇도 아닌 그 경계에서 혼란에 휩싸이고 고뇌하는 히어로 로보캅(조엘 킨나만)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로보캅'이 스스로 슈트를 통제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펼치는 활약을 그린다. 세련된 올블랙 슈트와 하이테크 신무기, 화려한 바이크로 이전 버전의 영화에 비해 더욱 스타일리시한 비주얼과 스케일을 자랑한다.

베를린국제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한 호세 파딜라 감독이 연출을 맡아 더욱 기대를 높인다.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스타 조엘 킨나만과 연기파 배우 마이클 키튼, 게리 올드만, 사무엘 L. 잭슨이 출연한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인기 캐릭터 프랑켄슈타인도 다음달 개봉될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에서 괴물이 아닌 인류를 구할 히어로로 돌아온다.

이 영화는 인간이 창조해낸 불멸의 존재 프랑켄슈타인(아론 에크하트)이 악에 맞서 인류를 구할 거대한 전쟁을 펼치는 과정을 담았다. 이번 프랑켄슈타인은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초능력이나 별도의 특수장치가 들어간 슈트를 활용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히어로의 틀을 깨고 맨몸으로 초인적인 힘과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달 31일 개봉된 '엔더스 게임'은 외계의 공격을 받은 인류가 전제적 전략은 지닌 13세 소년 엔더(아사 버터필드)를 지구를 지켜낼 단 한 명의 히어로로 선택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현재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 중이다.

한편 올봄에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등 여러 편의 히어로물이 쏟아져 극장가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기자 taki0427@metroseoul.co.kr

엔더스게임

로보캅 /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

배우 조재현, 김현중, 임수향(왼쪽부터)이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KBS2 수목극 '감격시대'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 "상남자의 향기 보여주겠다"

### '감격시대' 김현중 밝혀

배우 김현중이 4년 만에 미조남으로 돌아온다.

2009년 '꽃보다 남자', 2010년 '장난스러운 키스' 등에서 부드러운 오빠 이미지를 선보이며 여심을 흔들었던 김현중이 KBS2 새 수목극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에서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상남자로 변신을 꾀한다.

9일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감격시대' 제작발표회에서 김현중은 "그동안 꽃미남 이미지가 강했다. 남성적 이미지를 어필하고자 '감격시대'를 선택했다"며 "아직 스물아홉 살이지만 선배들을 보며 성숙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현중은 신의주와 단동을 거쳐 상하이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파이터로 등극하는 불세출의 사나이 신정태 역을 맡았다.

'감격시대'는 방학기 작가의 동명 만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드라마로 1930년대 한 중 일 낭만 주먹들이 펼쳐내는 사랑과 의리·우정, 화려한 액션을 담아낸다. 15일 첫 방송된다. /정하용기자

## 'K팝스타 3' 남자 우승자 탄생하나

SBS '일요일이 좋다-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 3'(이하 'K팝스타 3')의 훈훈한 매력남들이 남성 우승자 탄생을 예감케 하고 있다.

지난 7회 방송에서 본선 3라운드 '캐스팅 오디션 파이널 매치'에서 남성 참가자들이 달콤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외모로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예상치 못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팝스타'는 시즌 1~2에서 여성 혼성 참가자가 우승함은 물론 이 멤버가 톱 10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강력한 '여풍' 현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K팝스타 3'에서는 야오 웨이타오, 한희준, 피터 한, 버나드 박, 샘 김, 정세운 등 남성 참가자들이 탄탄한 노래 실력과 특유의 매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먼파워'를 뛰어넘을 '맨파워'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지난 '캐스팅 쇼케이스'에서 남녀 혼성팀을 이뤘던 피터 한-한희준-정세운 등은 여성 참가자와의 호흡에서도 기량을 맘껏 뽐내며 강력한 '남풍'을 예감케 했다.

'짝짜꿍짝'(어반 자카파-박나진, 류태경)과 팀을 이뤘던 피터 한은 발성 문제를 극복하고 놀라운 편곡 실력까지 선보였다. 한희준 역시 특유의 능숙함으로 듀엣을 이룬 권은율의 감정까지 극대화시키는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정세운은 김아현과의 합동 무대를 통해 최고의 '케미'와 자신의 색을 확실히 보여줬다. 이외에도 야오 웨이타오, 버나드 박, 샘 김은 타고난 재능과 열정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제작진은 "남성 참가자들의 활약이 놀라울 정도로 빛나고 있다"며 "새로운 국민이 탄생하면서 이전 시즌과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서바이벌 오디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

SBS 'K팝스타 3'에 출연 중인 대표 훈남 피터 한, 야오 웨이타오, 버나드 박, 한희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화려한 무대·감동 '로스트 가든' 상륙

## 17일 국내 첫선 — 가수 김태우·티아라 전보람 출연

세계시장을 겨냥해 만든 뮤지컬 '로스트 가든'이 국내 무대에 상륙한다.

지난해 6월 열린 중국 상하이 초연에서 3회 공연에 2만여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을 거둔 이 뮤지컬은 국내로 무대를 옮겨 17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욕심쟁이 거인'이 원작이다.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성에 갇혀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던 거인이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속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일본·이탈리아 등 다국적 제작 군단이 5년에 걸쳐 제작했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한국 공연 흥행에 성공한 소준영 총감독의 지휘 아래 무성영화 기법과 각종 연주, 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미국 기타리스트 릭 리가 음악을 담당하고,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무대 디자이너 톰 리와 이탈리아 출신 안무가 엘리사 베트론트가 제작에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랑스 뮤지컬 가수인 제롬 콜렛도 참여해 중국 공연에 출연했던 가수 김태우와 주인공 거인 역을 번갈아 연기한다. 콜렛은 2006년 '노트르담 드 파리' 내한 공연에서 콰지모도와 프롤로 역을 맡아 한국 무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

티아라 전보람이 중국 공연에 참여했던 윤하의 바통을 이어받아 거인의 꽁꽁 언 마음을 녹이는 소녀 버시 역으로 출연한다. 문의 1544-1555

/박은희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뮤지컬 '로스트 가든'의 한 장면.

/늘푸른미디어 제공

# 디즈니 캐릭터 총출동 아이스쇼

## 22일부터 올림픽공원

백설공주부터 라푼젤까지 디즈니 동화를 한데 엮은 아이스쇼가 펼쳐진다.

아이스쇼 '디즈니온아이스 - 트레저 트로브 : 가족의 보물' 내한 공연이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림픽공원 내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총 3편의 디즈니 영화와 60여 개의 디즈니 캐릭터가 등장한다. 미키마우스·도널드덕·구피를 비롯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이 OST에 맞춰 스케이팅을 펼치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피터팬' '라이온 킹'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백설공주' '알라딘' '인어공주'와 같은 클래식 디즈니 애니메이션부터 최신 애니메이션인 '라푼젤' '개구리 왕자와 공주'에 이르기까지 엄선된 작품의 주요 장면들이 포함됐다.

'피터팬'의 '날아다니는 피터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하트 여왕의 병정, '알라딘'의 코끼리 퍼레이드, '라이온 킹'의 달려가는 누 떼 등 동화 속 장면을 박력 넘치는 그룹 스케이팅으로 구현한다.

이 밖에 관객들이 플린 라이더와 라푼젤을 도와 등불을 날려 보내는 '등불 날리기'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캐릭터들과 이용리며 찻잔을 타는 장면을 연출하는 '티컵 라이더' 등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문의 1544-3529

/박은희기자

# 거장 코엔 형제 첫 음악영화 '인사이드 르윈' OST 나왔다

세계 주요 영화 시상식을 휩쓴 코엔 형제의 첫 음악영화 '인사이드 르윈'(사진)의 OST가 9일 발매됐다.

'인사이드 르윈'은 포크 음악이 흐르는 1960년대 미국 뉴욕의 겨울을 배경으로 무일푼의 뮤지션 르윈이 겪는 7일간의 음악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밥 딜런·존 바에즈 등에게 영향을 미친 포크 뮤지션 데이브 반 롱크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다.

실제로 연주와 노래가 가능한 배우를 찾아 어릴 적 클래식 기타를 쳤던 오스카 아이삭을 르윈 역으로 캐스팅했고, 저스틴 팀버레이크·캐리 멀리건 등 연기와 음악을 모두 소화하는 역량 있는 스타들을 섭외했다.

OST는 영화음악의 대가인 티 본 버넷과 캐리 멀리건의 남편이자 지난해 그래미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한 멈포드 앤 선즈의 마커스 멈포드가 함께 작업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캐리 멀리건, 스타크 샌즈와 함께 '파이브 헌드레드 마일즈'를 불렀고, '그린 그린 로키 로드'는 데이브 반 롱크와 오스카 아이삭이 부른 두 가지 버전으로 실렸다. 또 밥 딜런의 '페어웰'도 수록됐다.

'인사이드 르윈'은 지난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고, 오는 12일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코미디뮤지컬 부문 작품상·남우주연상·최우수 주제가상에 노미네이트됐다. 국내에는 29일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sun@

# 유키 구라모토 데뷔 15주년 앨범 발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사진)가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 '스코어 오브 피아노'를 9일 발매한다.

이 음반은 유키 구라모토가 팬들에게 피아노로 들려주고 싶은 곡들을 망라한 최초의 베스트 컬렉션이다. 음악을 단순히 듣고 즐기는 것을 떠나 직접 쉽고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명곡들을 새로 편곡하고 다시 녹음했으며, 공식 악보집도 함께 발간했다.

그동안 출간된 악보들은 유키 구라모토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음반을 듣고 채보한 것이기에 연주 시 섬세함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해 가을 직접 곡을 고르고 이를 손으로 일일이 악보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이번 앨범에 두 번씩 수록된 '로망스' '메디테이션' '레이크 루이스' '온딘' 등은 아주 쉬운 버전과 다소 쉬운 버전의 두 가지로 실렸다.

유키 구라모토는 "내 음악의 연주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멜로디는 바꿀 수 없다 해도 왼손 파트를 간단한 음형으로 바꿔 더 편하게 연주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선화기자

# 관객 참여하는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가 새로운 시리즈를 맞아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재탄생한다.

이 공연은 지난해 7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가족 공연 사상 최대 규모로 '슈퍼액션쇼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vs 고버스터즈'를 선보여 2주 동안 약 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4일부터는 관객과 가까이 만나고자 중극장인 타임스퀘어 CGV 신한카드아트홀로 자리를 옮겨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고버스터즈'를 공연 중이다.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파워레인저가 관객과 함께 극의 한 부분을 이끌어간다는 점이다. 관객이 액션을 배워 악당들을 물리치는 시간을 가진다. 문의 1544-1555

/박은희기자

# 썰매 '기적 시리즈'…소치 씽씽 달린다

## 봅슬레이 2인승 사상 첫 금·은…루지 전 종목 출전 확정

그동안 '변방의 설움'을 겪던 썰매 종목이 연일 낭보를 전하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기적을 예고했다.

9일 봅슬레이 대표팀이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자 2인승 금·은메달을 휩쓴 데 이어 루지 대표팀은 최초로 전 종목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아메리카컵 정상에 오른 여세를 몰아 올 시즌에만 4개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파일럿 원윤종과 브레이크맨 서영우로 이뤄진 대표팀은 9일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 남자 2인승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51초41로 우승을 차지했다. 파일럿 김동현과 전정린 조는 0.46초 뒤진 1분51초87로 2위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표팀은 3위 알본(1분52초21)을 제치고 금메달과 은메달을 싹쓸이했다.

대표팀은 지난해 3월 아메리카컵에서 한국 봅슬레이 사상 국제대회 첫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아메리카컵 6차 대회 등 벌써 다섯 번째 정상에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연일 금빛 소식을 전하는 봅슬레이 대표팀은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2인승에 두 팀을 모두 출전시키겠다는 목표에 바짝 다가섰다.

또 한국 루지 대표팀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에 선수를 내보내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루지경기연맹(FIL)의 한 관계자는 9일 "국제루지경기연맹으로부터 모든 종목에 출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루지는 남녀 싱글과 남자 2인승, 팀 계주 등 네 종목에 모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전 종목에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것은 한국 루지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9일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봅슬레이·루지와 함께 3대 썰매 종목인 스켈레톤에서는 썰매를 탄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신예 윤성빈이 7위. 아메리카컵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대륙간컵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유선호기자 yoo@metroseoul.co.kr

비신사적 행위로 프로농구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SK 나이츠의 애런 헤인즈가 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인천 전자랜드전을 앞두고 관중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자랜드 SK전 8연패 탈출

인천 전자랜드가 서울 SK전 8연패를 끊었다.

전자랜드는 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75-66으로 이겼다.

이로써 SK에 8연패를 기록하던 전자랜드는 2012년 10월 13일 이후 453일만에 승리를 거뒀다. 순위는 5위(16승 16패)를 유지했다.

전주 KCC는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타일러 윌커슨(23점)과 강병현(17점)을 앞세워 원주 동부를 74-64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다.

/박상호기자

### 프로농구 전적 9일

| 팀 | 1Q | 2Q | 3Q | 4Q | 합계 |
|---|---|---|---|---|---|
| 동부 | 13 | 13 | 21 | 17 | 64 |
| KCC | 16 | 19 | 24 | 15 | 74 |
| 전자랜드 | 27 | 18 | 10 | 20 | 75 |
| SK | 17 | 18 | 14 | 17 | 66 |
| 우리은행 | 16 | 14 | 17 | 22 | 69 |
| 하나외환 | 8 | 18 | 8 | 14 | 48 |

### 프로배구 전적 9일

| 팀 | | | 팀 |
|---|---|---|---|
| 기업은행 | 0 | 3 | 도로공사 |
| 현대캐피탈 | 3 | 1 | LIG손해보험 |

## LPGA 보너스 상금제 도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보너스 상금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LPGA투어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부터 매 대회 포인트를 배정해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에게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 상금 100만 달러(약 10억원)를 준다"고 전했다. 각 대회 우승자에게 500점을 주고 컷오프를 통과한 선수들까지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포인트를 부여한다.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625점이 되는 등 일반 대회보다 25%의 가산점을 더해준다. 다만 컷오프가 없는 투어는 상위 40위까지만 점수를 준다. 11월 로레나 오초아가 끝나면 포인트 상위 72명과 시즌 우승자가 모두 출전하는 최종전 CME그룹 투어챔피언십을 통해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 우승자를 가린다.

/채성운기자

# 돌아온 메시…3분사이 2골

## 헤타페전 패스·드리블 완벽…호날두와 득점경쟁 스타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가 득점 경쟁을 시작했다.

지난 7일 레알 마드리드와 셀타 비고와의 경기에서 호날두가 멀티골을 터뜨린 데 이어 부상에서 돌아온 메시가 헤타페와의 복귀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골잡이를 뽐내고 있다.

메시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에서 벌어진 헤타페와의 2013~2014 코파델레이(국왕컵) 32강 1차전 경기에 교체 출전했다. 2달여 만의 출전이었지만 2골을 터뜨리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리오넬 메시가 9일 헤타페전에서 두 골을 성공시킨 후 기뻐하고 있다. /AP 뉴시스

후반 19분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교체로 들어온 메시는 후반 45분과 추가시간에 연달아 골을 터뜨렸다. 약 2~3분 만에 연달아 멀티골을 기록했다. 메시는 골 외에도 감각적인 패스와 완벽한 드리블까지 역시 메시임을 증명했다.

메시는 지난해 11월 열린 레알 베티스와의 프리메라리가 13라운드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된 뒤 치료와 재활에 매진해왔다.

앞서 호날두는 7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셀타 비고와의 2013~2014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17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장병호기자

## 홍명보, 박지성 복귀 3월 담판 짓는다

2014 브라질월드컵 최종 엔트리 확정을 앞두고 홍명보(45)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는 3월 박지성(33·PSV 에인트호번)과 대표팀 복귀 여부를 담판 지을 예정이다.

홍 감독은 3월로 예정된 축구대표팀 유럽 원정 평가전을 앞두고 현지에서 박지성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뒤 발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9일 홍 감독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박지성이 대표팀에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직접 확인한 것은 없다"면서 "조만간 직접 대화를 나누며 진심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인 시점에 대해서는 "3월에 대표팀이 그리스를 상대로 원정 평가전을 치르는 만큼 그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2009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주요 대회를 자신과 함께 치르며 성장한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브라질월드컵 본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여기에 리더십을 겸비한 베테랑을 추가해 패기와 경험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박지성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2006년 독일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대표팀 리더 겸 전술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젊은 피로 중심이 된 대표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호기자

## 매덕스 명예의 전당 입성

1990년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전성기를 이끈 원투펀치 그레그 매덕스와 톰 글래빈(사진), 시카고 화이트삭스 거포 프랭크 토머스가 2014 미국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9일 공개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 결과 매덕스는 총 571표 중 555표를 획득해 97.2%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글래빈과 토머스도 각각 91.9%(525표), 83.7%(478표)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 입회 기준(득표율 75%)을 넘겼다.

매덕스의 사상 최초 만장일치 입성은 무산됐다.

/유선호기자